

# 退溪의 忠孝思想

慶北大 教授 哲博 韓 明 洙

## 《目 次》

- |               |                |
|---------------|----------------|
| I. 緒 論        | III. 忠의 概念과 變遷 |
| II. 孝의 概念과 變遷 | 1. 忠의 古典의 概念   |
| 1. 孝의 古典의 概念  | 2. 退溪의 忠思想     |
| 2. 退溪의 孝思想    | 3. 忠의 現代의 意義   |
| 3. 孝의 現代의 意義  | IV. 結 論        |

## I. 緒 論

萬物은 流轉한다. 自然의 現象도 變化하고 人間의 事象도 變遷한다. 衣·食·住와 같은 日常의 生活의 樣式에서 온갖 文化의 形態에 이르기까지 變하지 않는 것은 없다. 人間적 삶의 規範인 道德的 意識도 例外는 아니다. 수 많은 德目들이 時代와 더불어 浮沈했고 한 時代 한 社會에서 盛行했던 덕목도 시대와 社會의 變遷에 따라 衰退하게 된다. 지나간 世代之 삶을 형성했던 德목도 그것을 지탱해왔던 社會가 變化하던 說得力을 상실해버린다. 이리하여 어떤 德목은 우리의 理解에서 점점 退色되고 마침내 忘却의 世界로 사라진다. 그 대신에 새로운 德목이 삶에 요구에 따라 서서히 등장한다. 혹은 오랜 罔罔을 갖고 있는 德目들도 같은 名稱으로 表現되고 있지만 그 概念은 變遷을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德의 變遷은 道德史를 일별하면 명백해질 것이다. 그것은 古代 <그리스>에서 中世와 近世를 거처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두드러진 現象이거니와, 傳統성이 강한 儒家道德에 있어서도 그러한 變遷을 볼 수 있다. 사실 古代 中國 春秋時代에는 各樣 各色의 德目들이 등장했다. 三德·四德·九德·五教·六順<sup>1)</sup>등 실로 多彩롭다. 그러나 中國人에게 道德的 觀念을 강하게 심어주고 도덕적 전통을 다지는 데 決定的인 轉機를 마련한 것은 孔子의 人格과 그의 敎學이다. 孔子는 智·仁·勇의 三德을 重視했고, 특히 孝弟忠信의 篤行에 의한 仁의 具現을 力說했다. 孟子는 孔子의 三德을 仁·義·禮·智의 四德으로 展開했으며, 또 人倫關係를 父子·君臣·夫婦·長幼·

1) 春秋左氏傳 隱公三年, 父慈 子孝 兄愛 弟敬 君義 臣行

朋友로 파악하여 親·義·別·序·信의 五倫을 相互義務로 規定했다. 이 四德·五倫은 그 후 中國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에서도 오랫동안 도덕적 전통이 되어왔다. 退溪도 이러한 傳統思想을 계승하여 五倫과 忠孝의 德目을 강조했다.

이처럼 道德意識의 變遷은 두드러진 사실이다. 忠孝의 概念도 오랜 傳統的인 德目이지만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적지 않은 변천을 겪어왔다. 우리는 나중에 春秋時代·孔孟·退溪에 있어서 忠孝概念의 分析을 통해 그러한 事態를 볼 것이다. 過去는 姑捨하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忠孝의 德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說得力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그것은 오늘날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既成 世代들마저도 종종 孝를 家父長的 專斷의 弊習으로 이해하고, 忠을 오로지 封建君主에 대한 忠節로 誤解하여 그것을 封建的 道德의 殘孽라고 비난한다. 아뭏든 이전에는 <百行的 根本>이었던 忠孝의 美德이 오늘날 퇴색해가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이 어찌할 수 없는 時流이며 19世紀 歷史主義學派의 주장처럼 도덕의식이 相對的인 것이라면, 과연 忠孝의 德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러한 德의 변천에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歷史的·分析的 方法으로 接近해 보고자 한다.

## II. 孝의 概念과 變遷

孝는 儒家의 道德 가운데 가장 尊重되어온 日常的인 德目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孔子는 말하기를 孝弟는 《仁의 本》<sup>2)</sup>이라 했다. 이와 비슷한 말은 <孝經>에도 있다. 《무릇 孝는 德의 根本이다.》<sup>3)</sup> 또는 《다섯 가지 刑罰의 종류가 三千이나 되지만 그 죄가 不孝보다 더 큰 것은 없다.》<sup>4)</sup> 그리고 孟子에 의하면 《堯舜의 道는 孝弟일 뿐이다.》<sup>5)</sup> 이로써 보건대 自古로 先賢들이 孝를 모든 德目的 根源으로 생각한 것은 분명할 것이다.

退溪도 《孝는 百가지 行實의 根源이 된다》<sup>6)</sup>고 했으며, 그의 글에는 孝·悌·忠·信이라는 말이 종종 보인다. 몇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귀절들이 있다. 《孝悌忠信은 人道의 大本이다.》<sup>7)</sup> 《孝慈의 道는 天性에서 나오며 모든 善의 으뜸이다.》<sup>8)</sup> 또 《孔子

2) 論語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3) 孝經 經一章, 夫孝德之本也 教之所由生

4) 同上 傳八章,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5) 孟子 告子下, 堯舜之道 孝弟已矣

6) 退溪全書上 戊辰六條疏 182面, 孝爲百行之原

7) 同上 鄉立約條序 942面, 孝悌忠信 人道之大本

8) 同上 戊辰六條疏 183面, 孝慈之道 出於天性而首於衆善

의 三千 弟子들이 날마다 聖門에 노닐면서 講論한 것은 오직 孝悌忠信뿐이다.》<sup>9)</sup> 《배우는 자는 반드시 孝悌忠信을 根本으로 하고 다음에 天下萬事에 미치며 性品을 다해서 命의 極을 이룩한다.》<sup>10)</sup> 이 말은 爲學의 實과 着手處로서 孝를 力說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1. 孝의 古典的 概念

(1) 孔子以前的 春秋時代에 있어서 孝의 概念은 주로 祖上 崇拜 또는 奉祭의 뜻으로 이해되어 있었다.<sup>11)</sup> 이것은 다음 글에서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宗(君)을 威하고 祭祀를 廢하는 것은 孝가 아니다.》<sup>12)</sup> 또 《무릇 임금이 即位하여 舅甥을 좋아하고 婚姻을 다스리며 元妃를 취하여 柒盛을 만드는 것이 孝다. 孝는 禮의 시초다.》<sup>13)</sup>

이처럼 奉祭를 主로 하는 孝의 觀念은 春秋末葉에 있어서 生前의 父母奉養이라는 뜻으로 一般化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孔子는 生前의 奉養뿐만 아니라 死後의 孝도 重視했다. 禹王이 平日에 飲食을 薄하게 하고 祖上의 祭祀를 厚하게 한 行爲를 칭찬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sup>14)</sup> 또 孟軻子가 孔子에게 孝道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父母가 살아 있을 때 禮로써 섬기고 죽었을 때 禮로써 모시고 祭祀를 들일 때 禮로써 해야 한다.》<sup>15)</sup> 이 말은 生前死後를 통하여 각각 應分의 孝를 力言한 것이다. 그리고 《三年 동안 先親의 道를 고치지 않아야 가히 孝라 한다》<sup>16)</sup>는 말도 같은 뜻이다.

그러나 父母의 三年喪이 너무 길다는 論難은 當時에도 있었던 것 같다. 宰我가 이것을 물었더니 孔子는 단호히 短喪을 물리쳤다.

宰我：《三年의 喪期는 너무 깁니다. 君子가 三年이나 禮儀를 지키지 않으면 예의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三年이나 風樂을 하지 않으면 풍악은 반드시 衰退해 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은 이미 다 해지고 텃 곡식이 났으며, 불붙일 나무를 부숴내고 새 불씨를 일으킨 바에야 服喪도 一年에 그칠 것입니다.》

孔子：《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그대에게 편안한가?》

宰我：《편안 합니다.》

孔子：《그대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라. 대저 君子는 喪中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아니하며, 풍악을 들어도 즐겁지 아니하며, 편히 거처해도 편안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라.》

9) 同上 答黃仲舉 論白鹿洞規集解 478面, 三千之徒 日遊聖門而所講者 惟孝悌忠信云云

10) 同上 答鄒子中 576面, 爲學者必本於 孝悌忠信 以次而及於天下萬事 盡性至命之極

11) 中國倫理思想史 鈴木由次郎編 東京 學藝書房 昭和 14年 83面以下參照

12) 春秋左氏傳 定公上 傳四年, 威宗廢祀 非孝也

13) 同上 文公上 傳二年, 凡君即位 好舅甥 脩婚姻 娶元妃以奉柒盛 孝也 孝禮之始也

14) 論語 泰伯 參照

15) 同上 爲政,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16) 同上 里仁,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宰我が 밖으로 나가자 孔子는 이렇게 말했다.

孔子 : 《그대의 어질지 못함이어 ! 子息이 나서 三年이 되어야 비로소 父母의 품에서 벗어 나듯이 父母의 喪을 三年 동안 모시는 것은 天下의 공통된 喪禮다. 그때는 그대 父母에게서 三年 동안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sup>17)</sup>

喪期는 孔子가 <三年의 喪이 天下의 通喪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의 慣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民族과 時代에 따라 變遷할 수 있다. 본래 中國과 韓國에서는 3年 日本에서는 13個月이 通例였다. 그러나 이 慣例는 점차 短喪으로 변하여 近者에는 1年の 喪이 보통이다. 그리고 服喪의 精神은 期間의 長短에 있는 것이 아니라 退溪가 말했듯이 《其情最切》<sup>18)</sup>한 孝心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孔子의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라는 말도 退溪의 <其情最切>한 孝心의 뜻으로 이해되어 진다.

아름든 孝의 概念은 이제 祖上奉祭에서 父母奉養으로 轉化되었다. 孟子는 父母의 奉養을 돌보지 않는 것이 三大 不孝라고 힘주어 말했다.

《世俗에서 말하는 不孝子는 다섯 가지니, 四肢를 게을리하여 父母의 奉養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의 不孝다. 장기나 바둑을 두며 술마시기를 좋아하고 父母의 奉養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둘째의 不孝다. 財物을 좋아하고 妻子와의 애정에만 빠져서 父母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세째의 不孝다. 귀와 눈의 欲望을 만족시키느라고 父母를 욕되게 하는 것이 네째의 不孝다. 용맹과 싸움과 성범을 좋아하여 父母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의 不孝다.》<sup>19)</sup>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가 父母奉養을 돌보지 않는 不孝에 속한다.

退溪도 孟子의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 爲五不孝之一>라는 말을 援用하면서 <西銘>의 <禹王이 맛 좋은 술을 끊은 것은 崇伯의 아들이 父母의 奉養을 돌보는 것이다><sup>20)</sup>라는 귀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儀狄이 술을 단들었다. 禹王이 마셔 보니 맛이 좋았다. 그는 말하기를 <後世에 반듯이 술로 말미암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드디어 그는 儀狄을 멀리하고 맛좋은 술을 끊어버렸다. 禹王이 맛좋은 술을 끊은 것은 이렇게 풀이 할 수 있다. 즉

17) 同上 陽貨,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心崩 舊穀既沒 新穀既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於女安乎 曰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18) 退溪全書上 戊辰六條疏 183面, 孝慈之道出於天性 而首於衆善 其思至深 其倫至重 其情最切 云云

19) 孟子 離婁下, 世俗所謂不孝子五 惰其四支 不顧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20) 退溪全書上 西銘考證講義 222面, 惡旨酒 崇伯子之顧養

21) 同上, 禹之惡旨酒 乃遏人欲 而存天理 如人子不好飲酒 而能顧父母之養也

《바로 사람의 欲心を 막고 天理를 보전하는 것은 아들이 슬마시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능히 父母奉養을 돌보는 것과 같다.》<sup>21)</sup>

退溪의 이러한 해석은 孝의 概念이 形而上學的으로 展開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孝는 단순히 奉養뿐 아니라 父母의 뜻을 받들어(養志) 順從한다는 것이다. <春秋左氏傳>에 이러한 말이 있다.

핀나라의 獻公이 寵愛하는 驪姬의 참소를 듣고 太子 申生을 죽이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 申生에게 無罪함을 변명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他國으로 亡命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역시 듣지 않고 마침내 스스로 살아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君主께서는 姬가 아니면 가만히 起居해도 편안하지 않고 잘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내가 변명한다면 姬는 반듯이 죄를 받게 된다. 아버지는 이미 늙어섰고 나도 기쁘지 않다.》<sup>22)</sup>

이것은 父母의 뜻을 恭敬하는 有名한 故事다. 退溪는 <逃避하지 않고 살아 죽이기를 기다린 것은 申生의 공손함이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君子가 患難을 당해서 능히 죽을지 언정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와 같다면, 하늘을 恭敬하는 마음은 申生의 恭遜함과 같다》<sup>23)</sup>는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다.

핀나라 羊舌大夫는 《命을 어기는 것이 不孝요 일을 버리는 것이 不忠이라》<sup>24)</sup>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또 驪姬가 참소했을 때 公子 重耳는 蒲라는 곳으로 도망쳤다. 獻公이 寺人 披를 시켜서 蒲를 치게 했더니 이 때 重耳는 《君父의 命엔 抵抗하지 않는다》<sup>25)</sup>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故事는 모두 아버지의 뜻에 絶對로 順從하는 것이 孝道라는 것을 말해준다.

孔子에 의하면 <能養>이라는 것은 犬馬에도 있는 것이니 공경하지 않는 奉養은 孝라할 수 없다. 《近者의 孝는 잘 기른다고 말한다. 개와 말도 잘 길음을 받을 수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다르랴.》<sup>26)</sup> 또 孔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順從하는 것이 孝道라고 했다. 魯나라 大夫 孟懿子가 孝道를 물었더니 孔子는 《어기지 말라》<sup>27)</sup>고 대답했다. 여기에 <無違>라는 말은 禮를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禮로써 父母에게 順從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만일 父母의 잘못을 諫할 적에도 子息은 直諫을 피하고 幾諫을 해야 한다. 孔子는 이렇게 말한다.

《父母를 섬길 뎨 순하게 諫하고 실혹 나의 뜻을 좇지 않으셔도 또 공경하여 어기지 아니

22) 春秋左氏傳 僖公 傳四年, 君非姬氏居不安 食不飽 我辭 姬必有罪 君老矣 吾又不樂

23) 退溪全書上 西銘考證講義 222面, ·君子之處患難 能守死不貳如此 則其敬天之心 如申生之恭也·

24) 春秋左氏傳 閔公 傳二年, 違命不孝 棄事不忠·

25) 同上 僖公 傳五年, 君父之命不枝

26) 論語 爲政,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27) 同上,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하며 수고로움을 시키셔도 원망하지 않는다.》<sup>28)</sup>

이와 반대로 臣下는 君主의 잘못을 直諫해야 한다. 子路가 임금 섬김을 물었을 때 孔子는 대답하기를 《속이지 말고 顏色을 犯해서 諫하라》<sup>29)</sup>고 했다. 즉 임금을 섬길 땐 마땅히 誠實한 마음으로써 해야 하며 결코 임금을 속여서는 안된다. 임금에게 過誤가 있으면 面前에서도 이것을 諫해야 한다. 임금에게 잘못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諫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不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事親無違 事君犯之>라고 하는 所以다.

(3) 어버이에게 順從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孝다. 孟武伯이 孔子에게 孝道를 물었다. 孔子는 대답하기를 《父母는 오직 子息의 病을 근심 한다》<sup>30)</sup>고 말했다. 무릇 父母가 子息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은 지극히 간절하다 자식이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장성한 뒤에도 父母의 마음은 잠시도 자식에서 떠나지 않는다. 子息이 健康하면 父母는 기뻐하고, 病이 들면 父母의 心勞는 더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父母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孝道라고 한다.

또 子夏가 孔子에게 孝道를 물었더니 孔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즐거운 낯으로 父母를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수고를 하고, 술과 음식이 있으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 어찌 孝道라 하겠는가?》<sup>31)</sup>

즉 父母를 섬길 땐 언제나 和悅한 顏色으로써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父母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으면 不可能하다. 단순히 대신 수고하고 父母를 먼저 대접한다고 해서 이것을 孝道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父母가 살아 계시면 멀리 떠나지 않으며, 떠나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sup>32)</sup>는 말도 같은 뜻이다. 누구나 子息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이 至切하기 때문에 父母는 子息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만 떨어져 있으면 늘 마음이 쓰인다. 그러므로 孝子는 이러한 父母의 心中을 살피서 朝夕으로 問安을 드릴 수 있도록 멀리 떠나지 않는다. 不得已 떠나야 할 때는 반드시 父母에게 가는 向方을 알려서 安心하도록 해 드려야 한다.

孟子는 舜임금의 大孝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면 자식이 될 수 없다.》<sup>33)</sup> 舜임금이

28) 同上 里仁,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29) 同上 憲問,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而犯之

30) 同上 爲政,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31) 同上, 子愛問孝 子曰 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 曾是以爲孝乎

32) 同上 里仁,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33) 孟子 難婁上, 不得乎親 不可爲人 不順乎親 不可爲子

아버이를 기쁘게 한 大孝는 <西銘>에도 言及되어 있다. 《수고로움을 늦추지 아니하고 즐거움에 이르게 한 것은 舜의 功이다.》<sup>34)</sup> 退溪는 孟子的 《瞽瞍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이라는 말을 援用하여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舜임금의 아버지 瞽瞍가 항상 舜을 죽이고자 창고를 고치라 하고 우물을 파라고 했다. 舜은 勞苦 때문에 孝道하고 恭敬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誠篤한 마음을 극진히 했다. 그러므로 瞽瞍도 깨닫고 기뻐하기에 이르렀다. 《君子가 하늘 섬기기를 이와 같이 하면 至誠이 感天하는 功도 舜이 아버지를 즐겁게 한 功과 같다.》<sup>35)</sup>

또 孟子에 의하면 父母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思慕하는 것이 大孝다. 사람이 어리면 父母를 思慕하다가 女子를 알게 되면 女子를 따르고 妻子를 갖게 되면 妻子를 사모하고 벼슬을 가지면 임금을 사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大孝는 終身토록 父母를 사모한다. 《五十이 되어도 父母를 思慕하는 것을 나는 위대한 舜임금에서 보았다.》<sup>36)</sup>

## 2. 退溪의 孝思想

(1) 退溪에 의하면 孝는 아버이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孝道를 他人에게 미치게 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退溪는 <西銘>의 <育英才穎封人之錫類>라는 말을 빌려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孟子는 <天下의 英才를 얻어 教育하는 것이 세계의 즐거움이라>고 했다. 春秋時代에 鄭 莊公의 臣下로서 穎考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封疆의 직책을 맡은 官員이었기에 世人들은 그를 封人이라 불렀다. 莊公은 그의 아우 共叔段의 背反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城穎이라는 곳에 두고 맹세하기를 <黃泉에 가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곧 後悔하게 되었다. 穎考叔이 이 말을 듣고 莊公에게 나아가서 죄니 莊公은 考叔에게 음식을 하사했다. 이 때에 이러한 對話가 있었다.

考叔: 고깃국을 내놓으면서 《어머니에게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莊公: 《너는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홀로 어머니가 없구나.》

考叔: 《두손 달음이십니까?》

莊公: 그 사연을 말한다.

考叔: 《망을 과고 땅 밑의 굴에서 서로 만난다면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莊公이 이 말을 좃으니 母子 사이가 처음과 같이 되고 그 즐거움이 흠족했다. 그러므로 君子는 이렇게 말한다. 《穎考叔은 순수한 孝子다.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孝心은 莊公에까지 미치게 했다. <詩經>에 <孝子는 다함이 없다. 길이 너의 동류에게 주라(孝子不匱 永錫爾類)>는 말이 있거니와 그것은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다.》 張橫渠는 이렇게 말했다. 《君子가 自己의 天性이 착함으로 미루어 天下의 英才를 가르쳐서 다 착하게 하는 것은 穎考叔이 自己의 孝心으로 미루어 莊公에게 미치게 해서 또한 孝子가 되게 한 것과 같다.》<sup>37)</sup>

34) 退溪全書上 進聖學十圖 西銘 200面, 不弛勞而底豫舜其功也

35) 同上 西銘考證講義 222面, 君子事天如此 則格天之功 如舜悅親之功也

36) 孟子 萬章上, 大孝終身慕父母 五十而慕者 予於大舜見之矣

37) 退溪全書上 西銘考證講義 222面 參照

(2) 退溪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가지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아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스스로 反省하고 德을 닦는 데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孝道라고 한다. 이것은 <戊辰六條疏>에 소상히 記錄되어 있다.

《아버이의 마음이 자식을 노여워할 때 자식이 두려워하여 德을 닦고 反省하기를 아버지의 노하고 노하지 않는 바를 묻지 않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孝道하면, 아버이는 자식의 정성된 孝心을 기뻐하며 노했던 일이 모두 함께 풀리어 흔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직 한가지 일을 지정해서 이 일에만 두려워하여 德을 닦고 반성하고 나머지 일에는 여전히 뜻대로 한다면 孝를 이루는데 誠實하지 못하며 이것을 거짓으로 하는 것이다. 어찌 아버이의 노여움을 풀고 그의 기쁨을 얻겠는가?》<sup>38)</sup>

다시 말하면 子息이 마땅히 해야 할 道理는 無窮하고 無盡하다. 어찌 아버이를 섬김이 이미 족하여 다른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가지 行爲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孝는 순수한 孝가 될 수 없다.》<sup>39)</sup>

(3) 退溪의 孝 概念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아버이의 망극한 恩惠에 대해 感謝하는 마음으로 報答한다는 것이다. 退溪는 이렇게 말한다.

父母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慈라 하고 아들이 父母를 잘 섬기는 것을 孝라고 한다. 그리고 《孝와 慈의 道理는 天性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善의 으뜸이다. 그 恩惠는 지극히 깊고 그 倫理는 지극히 무겁고 그 情은 가장 절실하다. 至深한 은혜로써 至重한 倫理로 말미암아 最切한 情을 행하되 마땅히 다 못한 것이 없어야 한다.》<sup>40)</sup>

여기에 孝의 前提로서 세 가지가 強調되어 있다. ① 아버이의 慈와 아들의 孝다. ② 慈孝의 道理는 天性에서 나온다. ③ 父子의 倫理는 最切한 情으로써 履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이를 잘 섬기는 것을 孝라고 했고, 아버이를 잘 섬긴다는 것은 아버이의 뜻에 順從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順從이라는 것은 感謝하는 마음이 없으면 一方의인 強要로 전락한다. 孝란 그러한 一方의인 強要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父母의 뜻에 順從하고 그 지극한 恩惠에 報答하는 것이다. 이러한 孝의 뜻을 退溪는 <西銘>의 <體其受而歸全者參乎>라는 글귀를 풀이하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돌려서 온전케 한다>(歸全)는 말은 樂正子春이 孔子의 말을 援用한 것이다. 즉 <父母가 온전하게 낳았으니 아들이 온전하게 保存했다가 돌려 준다>는 뜻이다. <體其受>라는 말은

38) 同上 戊辰六條疏 191面, 親心有怒於子 子之恐懼修省 不問所怒與非怒 事事盡誠而致孝 則親悅於誠孝 而所怒之事 並與之渾化無痕矣 不然 只指定一事而恐懼修省於此 餘事依舊恣意 則不誠於致孝而僞爲之 何以解親怒而得親歡乎

39) 同上 183面, 雖然孝爲百行之原 一行有虧 則孝不得爲純孝矣

40) 同上, 父母之愛其子爲烝 子之善事親爲孝 孝慈之道出於天性 而首於衆善 其恩至深 其倫至重 其情最切 以至深之思 因至深之倫 而行最切之情 宜無有不盡者 而或至於孝道有缺慈天予虧 其有甚者則至親 化爲豺狼而莫之恤 云云



孔子가 曾參에게 준 글에서 유래한다. 즉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不敢毀傷이 孝之始也 오, 立身行道하고 揚名於後世하여 以顯父母는 孝之終也니라.> 이 말은 <禮記> <孝經> <小學>에 기록되어 있다. 曾子는 孔子의 이 敎訓을 終身토록 지켰다고 한다. 그는 臨終이 가 까와오자 弟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발을 꺾라 나의 손을 꺾라! <詩經>에 <몹시 두려워서 깊은 못가에 선 것 같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다>고 했거니와, 이제부터 내가 그 두려움을 면한 것을 알겠구나. 애들아!》 무릇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몸을 온 전하게 돌리는 것은 하늘의 孝子 曾參이 된다는 것이다.<sup>41)</sup>

<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말은 自己 몸을 보전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父母의 극진한 보살핌의 은택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父母의 보살핌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立身行道 揚名於後世>라는 것은 世俗의인 出世 成功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人格의인 成長과 公人으로서의 名譽를 尊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子息의 人格的 成熟으로 말미암아 父母의 慈愛가 結實되어 그 <至深한 恩惠>에 報答하는 것이 <以顯 父母>의 참 뜻이며, 이것이 효도의 끝이다. 이렇게 풀이 할 수 있다면 父母의 <最切한 情>은 아들 의 孝心에 의하여 結實되며, 이리하여 <慈孝의 道>는 實現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父母의 至深한 恩惠에 대해 感謝하고 信賴하며 父母의 뜻에 順從하고 報答하는 것 즉 孝道는 특히 靑少年의 基本體質을 規定한다. 즉 父母의 지극한 愛情과 恩惠에 대한 感謝에서 自發的·肯定的인 順從이 나오고 이러한 肯定的인 適應에서 感謝의 情이 結實된다. 만일 父母의 恩惠에 대한 感謝 없이 一方的으로 服從을 強要한다면, 이것은 兒童에게 苦痛을 주고 劣等感과 挑發癖을 助長하게 된다. 兒童의 劣等意識과 反抗心은 父母와의 自然的인 一體感의 파괴 즉 父母의 至切한 愛情의 缺如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除外하면 一般的으로 兒童은 成人에게로 接近하며 그와 厶累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信賴하게 된다. 이리하여 兒童은 成人들의 生活秩序에 適應하게 되고 여기에서 自發的·肯定的인 服從心이 나온다.

다른 感謝와 順從에 의한 父母와의 關係는 자식이 자라나는 동안 어느 때든지 반드시 일단 파괴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렇게 파괴된 孤立的인 狀態는 一時的인 脫線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狀態 속에 兒童의 氣分은 좋을 수 없다. 感謝와 順從의 硬化된 狀態가 다시 父母와의 一體感을 回復할 때 兒童은 幸福을 느끼게 된다. 不順從은 단순히 하나의 缺點이 아니라 責任 있는 自立的인 生活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過渡的인 現象이다. 아롱든 감사와 순종의 回復은 敎育의 根本的인 前提이며 특히 現代敎育에 있어서 提起되어야 할 課題다. 이 前提가 充足되지 않으면 敎育은 根本的

41) 同上 西銘考證講義 223面, …其有疾臨終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順從의 問題는 젊은 世代가 兒童의 感情의 領域에서 自由로운 承認의 領域으로 移行하면 마침내 그 比重을 喪失하게 된다. 그러던 이러한 순종의 상실은 父母의 至深한 情과 恩惠에 대한 감사에도 똑같이 해당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더우기 우리는 여기서 보다 더 깊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成熟過程을 留意해야 한다. 이 過程은 後日까지 擴大되어 靑壯年을 幼年期로 接近시킨다. 그리고 여기에서 父母에 대해 감사하는 은갖 情이 包括的·報恩의인 生活情調로 融合한다. 이제 子女들은 개개의 도움이라든지 개개의 禮物에 대해서가 아니라 삶 一般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이 삶은 모든 苦難을 넘어서 全體的으로 過分한 선물로 여겨진다. 〈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말의 참 뜻은 이 삶에 대한 感謝의 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感謝의 故郷에 대한 回想이라 하겠다. 그리고 〈以類父母〉라는 것은 이 情의 結實을 말한다.

우리는 背恩忘德하는 자를 教育할 수 없다. 그는 이 狀態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孝道란 자식된 道理를 배운다는 것이다. 자식의 道理를 배운다는 것은 〈至深한 恩惠로써 至重한 人倫으로 말미암아 最切한 情理를 행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태어나 父母의 품 속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자식된 道理다. 훌륭한 자식이 된다는 것은 다음 世代에 있어 훌륭한 어버이로서 共同體의 倫理를 完成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孝爲百行之原〉이란 이것을 말한다. 歷史의 傳統性은 어버이가 自己의 祖上인 어버이의 자식이라는 自覺에서 成立한다. 人類의 文明은 이러한 傳統에 의하여 發展한다. 즉 자식은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 그 未盡한 바를 發展시켜서 새로운 歷史를 創造해간다. 그리고 이것을 自身의 功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버이의 恩惠로 돌리는 것이 孝道다. 孝의 傳承을 통하여 우리는 民族의 아들이라는 歷史性과 共同體의 意識을 自覺하게 된다.

### 3. 孝의 現代的 意義

現代人은 종종 孝道를 封建道德의 殘孽라고 排擊한다. 社會倫理를 重視하는 사람들은 孝道를 家庭道德의 舊習이라고 輕視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誤解 내지 輕視風潮의 主因은 孝를 家父長的 權威에 의한 一方의인 強要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만일 孝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날 個性尊重의 民主時代에 逆行하는 낡은 德目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孝를 그렇게 理解할 수 밖에 없을까? 孝라는 것이 자식의 一方의인 義務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孔子의 〈父子 子子〉라는 말이 示唆하고 있다. 孟子의 〈父子有親〉은 父子의 人倫을 相互의 義務로 規定한 것이다. 그리고 退溪도 〈父慈

子孝) 또는 <父當慈 子當孝>라하여 分明히 相互義務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父慈 없는 子孝가 없고 子孝 없는 父慈도 없다. 오늘날 孝道는 父母와 子息 사이의 극진한 <사랑>이 없이는 存立할 수 없다. 그러므로 孝는 아버지의 命命에 대한 자식의 一方的인 服從이 아니다. 自己 스스로 孝道하지 않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孝道를 強要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孝行을 바라기 전에 自身이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를 反省해야 한다.

現代人들은 이러한 孝의 本質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言必稱 民主思想을 앞세워 孝弟라는 封建道德을 否定하는 데서 現代의인 人間像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人間性的 自立이란 封建道德으로부터 解放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에서 오늘날 兒童의 恣意本能을 助長하는 것이 民主主義教育이라는 誤解가 나온다. 이리하여 現代人은 자식이 아버지를 忽視하고 下位者가 上位者를 犯하고 作亂을 일삼는 道德的으로 無秩序한 社會相을 自招했다. 그러기에 이미 有子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됨이 孝悌하고 웃어른을 犯하는 자는 적다. 웃어른을 犯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직 없다. 君子는 根本을 세우고자 힘쓴다. 根本이 서면 道가 생기나니 孝悌는 仁을 행하는 根本이다.》<sup>42)</sup>

現代社會의 病痛을 是正하려면 우선 젊은 世代에게 올바른 孝悌思想을 심어주어야 한다. 爲人의 捷徑은 孝悌의 道요 孝悌는 敎人의 着手處다. 兒童에 있어서 感謝와 順從 즉 孝悌本能을 育成하지 않으면 도리어 破壞本能이 擡頭한다. 이런 兒童은 長成하면 自制力을 상실하고 亂暴한 사람이 돼 버린다. 그는 自己의 缺陷을 反省하지 않고 自己의 不幸을 他人에게 轉嫁한다. 그는 항상 不平不滿을 품고 世上을 원망하며 마침내 社會秩序를 파괴하는 犯人이 되고만다. 이러한 의미에서 退溪는 이렇게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와서, 제각기 제자리에 머물러 뉘바꿀 수 없다.》<sup>43)</sup>

또 《임금은 마땅히 어질어야 하고 신하는 마땅히 恭敬해야 하며, 아버지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것은 이 理致다.》<sup>44)</sup>

즉 <君君臣臣父父子子>는 天地의 道理이기 때문에 그 秩序도 <不可亂>이라는 것이다. 이 人倫의 道理가 허물어질 때 社會秩序도 파괴된다.

그러나 現代社會에 있어 孝道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夫婦의 利己의인 愛

42) 論語 學而, 有子曰 其爲人也孝弟而犯上者鮮矣 不好犯上而好亂者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

43) 退溪全書下 言行錄四 837面, 是君君臣臣父父子子各止其所而不可亂也

44) 同上 836面, 君當仁 臣當仁 父當慈子當孝 此理也 云云

情 때문에 孝道가 소홀히 되고, 父母의 一方的인 孝道의 强要 때문에 兒들의 夫婦生活이 犧牲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더우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不和는 예로부터 종종 심각한 갈등과 悲劇을 招來했다.

子婦와 媳父母의 關係는 血緣的·直接的인 것이 아니라 婚姻에 의해 맺어진 義理的·間接的인 것이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남편의 아버지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과의 사랑에 의해 媒介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남편과의 至純한 사랑이 며느리로 하여금 시부모를 親부모처럼 대하게 하며, 兒들에 대한 最切한 情이 시부모로 하여금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는 兒들과 며느리와의 사랑을 尊重하며 助成하도록 항상 慈愛로써 配慮해야 한다. 이러한 慈愛의 報답이 곧 孝道다. 그러므로 시부모는 兒들에 대해서와 같이 며느리에 대해서도 마땅히 仁慈해야 하고, 며느리는 친부모에 대해서와 같이 시부모에 대해서도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父慈子孝>의 道理는 媳父母와 子婦 사이에도 다를 바 없다.

### Ⅲ. 忠의 概念과 變遷

忠의 德目은 儒家道德의 傳統에 있어서 孝 다음으로 重視되어왔다. 이것은 <論語>의 《孝慈則忠》<sup>45)</sup>이라든지 <孝經>의 《以孝事君則忠》<sup>46)</sup>이라는 말에서도 짐작될 수 있다. 退溪도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孝悌와 忠信의 德目을 매우 重視했다.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孝의 概念>에서 引用한 귀절 이외에 이러한 글이 있다.

《孝悌와 忠信은 사람이 타고난 性品에서 根源하는 것이다.》<sup>47)</sup> 또는 《孝悌와 忠信이 쌓여서 숨은 德이 된다.》<sup>48)</sup>

그리고 忠이라고 하면 특히 君主에 대한 臣下의 忠節이라는 뜻으로 理解되어왔다.

#### 1. 忠의 古典的 概念

臣下의 君主에 대한 德目으로서 忠을 강조하는 思想은 東西를 막론하고 封建制度의 倫理에서 由來한다. 그러나 그것은 臣下의 一方的인 義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君主의 신분에 맞는 德도 重視하고 있다. <春秋左氏傳>에 기록된 君臣關係는 여러가지 德目으로 規定되어 있다. 《君義臣行》<sup>49)</sup>이라든가 《君令臣恭》<sup>50)</sup>이라든가 또는

45) 論語 爲政, 使民敬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則敬 孝慈則忠 云云

46) 孝經 經一章 參照

47) 退溪全書上 鄉立約條序 942面, 孝悌忠信原於降衷秉彝之性

48) 同上 上舍朴君墓碣銘 1009—1010面, 孝悌忠信蓄爲潛德

49) 春秋左氏傳 隱公 傳三年

50) 同上 昭公 傳二十六年

《君明臣忠》<sup>51)</sup>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좋은 例다. 즉 君은 의롭고 臣은 行하며, 君의 命令에 臣은 恭遜히 順從해야 하며, 君은 明德하고 臣은 忠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君과 臣의 德目은 多樣했으며 臣의 忠은 이 가운데 하나의 德目에 不過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君의 忠이라는 말도 있었다. 즉 《이른바 道란 民에 忠하고 神에 信이 있다는 것이다. 主上이 民을 利롭게 하려는 것이 忠이다.》<sup>52)</sup> 이와 같이 古代에 있어서 君臣의 德目は 아직 流動的이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忠은 臣의 德目으로 固定되지 않고 오히려 一般的인 뜻으로 이해되었다. 즉 《私로써 公을 해치는 것은 忠이 아니다》<sup>53)</sup> 《밖으로 강직하고 안으로 溫柔한 것이 忠이다》<sup>54)</sup> 《忠은 德의 正이다》<sup>55)</sup>라는 말이 그것이다.

孔子도 君臣關係의 德을 一方的인 強要가 아니라 相互義務로서 規定했다. 《君君臣臣》<sup>56)</sup>이라는 말은 君臣關係의 一般的인 規定이라 하겠다. 즉 임금은 임금다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와야 한다는 뜻이다. 좀더 具體的인 表現으로서 孔子와 魯나라 定公 사이에 이러한 對談이 있다.

孔子：《임금을 섬기는 데 예를 극진히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한다.》

定公：《임금이 신하를 쓰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孔子：《임금은 禮로써 신하를 쓰고 신하는 忠으로써 임금을 섬겨야 하오.》<sup>57)</sup>

〈論語〉에서 忠을 臣의 德目으로 規定한 것은 이 한 귀절뿐이다. 忠의 概念은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一般的인 人間關係의 德目으로 이해되고 있다.

孟子는 君臣相互의 德目으로서 義를 강조했으나 忠을 擧論하지 않았다. 그리고 退溪가 〈忠君〉이라는 말을 直接的으로 쓴 것은 筆者가 본 바에 의하면 〈聖學十圖〉小學題辭에 나오는 한 귀절뿐이다. 즉 《愛親 敬兄 忠君 弟長》이라는 귀절이 그것이다. 君臣相互의 義務로서 《君仁臣敬》<sup>58)</sup> 또는 《君當仁 臣當敬》<sup>59)</sup>이라는 귀절이 있다. 그 밖에 《盡忠事君》<sup>60)</sup>이라든지 《事君之忠》 또는 《事父便是忠》<sup>61)</sup>이라는 말은 각각 〈孝經〉과 〈傳習錄〉에서 間接的으로 引用한 것이다. 이러한 少數의 例를 除外하면 退溪는 忠의 概念을 〈論語〉의 用法에 따라 一般的인 人間關係의 德目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51) 同上 襄公 傳九年

52) 同上 桓公 傳六年, 所謂道忠於民 而信於神也 上思利民 忠也

53) 同上 文公 傳六年, 以私害公 非忠也

54) 同上 昭公 傳十二年, 外疆內溫 忠也

55) 同上 文公 傳六年, 忠 德之正也

56) 論語 顏淵 參照

57) 同上 八佾,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詔也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58) 退溪全書上 重答黃仲舉 481面 參照

59) 同上 下 言行錄 836面 參照

60) 同上 上 西銘考證講義 221面 參照

61) 同上 雜著 922~923面 參照

러므로 우리는 退溪의 <忠>概念을 <論語>의 用例와 比較하면서 풀이해 보기로 한다.

## 2. 退溪의 忠思想

(1) 忠은 具體的인 人間關係에서 成立하는 것이다. 孔子의 《與人忠》<sup>62)</sup>이라든지 曾子의 《爲人謀而不忠乎》<sup>63)</sup>라는 말은 그 좋은 예다. 사람과 더불어 忠하며,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할 때는 忠實해야 한다는 뜻이다.

退溪는 《사람을 가르침에 반드시 忠과 信으로 해야 한다》<sup>64)</sup>고 말했다. 여기에 <敎人>이라는 것은 對人關係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忠과 信을 爲主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忠이란 일단 他人과 맺은 義理를 언제나 비록 變化된 狀況에서도 超時間的으로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忠은 비단 君에 대한 臣의 德目일 뿐만 아니라 主人에 대한 從者의 關係에서도 볼 수 있다. <忠僕>이라고 하는 所以다. 그리고 또 忠은 친구 사이에 있어서 강조된다. <忠友>란 우리가 困境에 빠졌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말한다. 이 경우에 忠의 反對는 背叛이다. 背叛이란 困境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自己에게 不利하면 도리어 친구의 關係를 否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人間關係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忠은 夫婦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逆境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絕對的인 <아가페>야 말로 忠의 化身이라 하겠다.

(2) 忠은 人間을 가장 內的인 中心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孔子는 이것을 《主忠信》<sup>65)</sup>이라고 表現했다. <主忠信>이란 人間에 있어서 德을 높이기 위해서는 忠과 信을 爲主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退溪는 <主忠信>을 좀 더 限定해서 《內主忠信》<sup>66)</sup>이라고 했다. <內主忠信>이란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안으로 忠과 信을 爲主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重要的 것은 <안으로>라는 限定語의 뜻이다. 그것은 人間의 內的·實存的인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忠은 誓約 또는 宣誓와 같이 外的 行動으로 表示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할 때 어디까지나 遜梯(遜梯)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忠의 本質은 안으로 忠을 主宰하는 데 있다.

그리고 <忠信>이라고 할 때 信이란 信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忠과 信은 서로 긴밀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信은 忠과는 약간 다르다. 즉 忠이 一定의 他人에 대한 忠實한 關係라면 信은 自己自身을 信賴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어떤 公務員이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맡은 일을 規則的으로 誠實하게 遂行한

62) 論語 子路

63) 同上 學而

64) 退溪全書下 言行錄 801面, 敎人必以忠信篤實 云云

65) 論語 顏淵

66) 退溪全書上 雜著 930面, 內主忠信而外行遜梯 云云

다면 그는 <믿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忠信은 忠誠으로 통한다.

(3) 忠은 <言約>을 지키는 데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孔子의 이른바 <九思> 가운데 《言思忠》<sup>67)</sup>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말에는 忠을 생각한다, 즉 言約에는 誠實하고 거짓이 없도록 思慮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言忠信》<sup>68)</sup>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退溪는 孔子의 <言忠信 行篤敬>이라는 말을 《言이 信히 하며 行에 敬을 篤히 하면 當云 言을 信히 하며 行을 敬히 하면》<sup>69)</sup>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退溪는 忠과 信을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 <言忠信>을 <말을 믿는다> 즉 <言約을 忠實히 지키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우리는 무엇을 言約함으로써 未來에 있어서 그것에 묶여 있으며 그 言約을 지켜야 할 義務(忠約)로 받아 들인다. 예를 들어 나는 入院中인 친구에게 電話로 問病을 約束한다. <오늘엔 갈 수 없으나 내일엔 갈 수 있다!> 나는 친구의 苦痛을 생각하고 나의 訪問과 對話를 통해 친구의 苦痛을 덜어주길 바라는 衷情에서 그렇게 約束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벌써 問題가 있다. 어떻게 해서 나는 나의 <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만일 오늘 간다면 이것은 나의 現在 感情의 直接的인 表現일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나는 내일에도 같은 感情을 갖고 있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가? 내일까지는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격렬한 同情心은 그러는 동안 쇠퇴하고 다른 일들이 보다 더 격렬하게 나를 催促해온다. 이렇듯 나는 어제의 同情엔 아무런 興味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 무엇이 결과하는가? 변화된 새로운 感情의 方向과 싸우면서 그래도 간다면 이 行爲는 義務遂行으로서 倫理的으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不誠實한 行爲를 하고 있는가? 아름은 絶對的인 眞實性을 行爲의 最高基準으로 삼는다면 나는 그것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內的인 感情과 矛盾되는 行爲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럼에도 간다면 不誠實하다.<sup>70)</sup>

그러나 이러한 事態把握은 과연 正當한가? 이 문제는 一般的으로 말하면 삶의 變遷性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나의 삶은 時時刻刻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나로서 내일의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나는 未來에 대해 무엇을 約束할 수 있는가? 분명히 나는 모든 것을 約束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言約을 敢行한다면 나는 內的으로 不

67) 論語 季氏,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思義

68) 同上 衛靈公, 言忠信 行篤敬

69) 退溪全書下 論語釋義 201面 參照

70) Vgl. O.F. Bollnow, Wesen und Wandel der Tugenden, Frankfurt/M. 1958, S. 165ff.

忠實하다. 그것은 非道德的인 言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물론 約束一般의 可能性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問題는 言約이 未來에 어떠한 의미를 초래하는가에 달려 있다. 저 경우엔 言約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兩者가 다 같이 非道德的이기 때문이다. 이 非道德性的의 根源은 言約을 지키는가 또는 안 지키는가에 있지 않고, 本質的으로 不可能한 것을 約束했다는 行爲自體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永遠한 사랑을 約束할 수 없다. 사랑도 하나의 感情이기 때문이다. 감정이란 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은 뜻대로 될 수 없다. 아무도 一定한 時點에서 一定한 感情을 가지려고 決意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感情의 變移 속에도 保存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지 않다. 이것이 忠이다. 忠이란 이처럼 感情의 變移에도 불구하고 言約의 義務를 굳게 지킨다는 것이다. 病床에 누워 있는 친구를 訪問하겠다는 言約은 내일의 感情如何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이 言約은 내일도 변함 없이 나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約束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限界가 있다. 즉 그러는 동안에 言約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 난다. 이를테면 나 自身이 앓아 누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言約은 모든 형편에 따라 可及的인 努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合理的인 限界에서만 可能할 것이다. 그리고 이 限界는 어떠한 경우에도 輕視되어서는 안된다. 言約은 언제나 重千金이기 때문이다.<sup>71)</sup>

### 3. 忠의 現代의 意義

사실 人間生活에 있어서 言約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미 日常的인 言約이 지켜진다는 사실은 言約의 本質的인 可能性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의 삶이란 단순히 瞬間的으로 변하는 自然的 狀態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끊임 없이 변화하는 自然的인 自我의 삶 속에 이것을 넘어서 同一하게 持續하는 다른 하나의 自我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自然的인 自我에 대해 말하자면 非自然的인 自我라고 할 수 있다. 또는 <非本來的>인 自我에 대해 <本來的>인 自我라고 해도 좋다. 무릇 道德的인 行爲는 非自然的·本來的인 自我에 의해 爭取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言約에 忠實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이 本來的인 自我 때문이다. 이런 限에서 인간은 超時間的인 存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自然的 存在로서 그러한 本來的인 自我를 언제나 所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忠에서 단 얻어지는 것이다. 自然的인 人間은 本來的인 自我로서 言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人間은 言約을 忠實히 지킴으로써 비로소 本來的인 自我를 획득하고 自己自身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人間은 저절로 自己自身이 되는 것

71) Vgl. a.a.O., S. 168ff.



이 아니라 道德의 行爲 즉 〈忠約〉에서 本來的 自己를 획득한다.

이것은 반대의 側面에서 본다면 더욱 분명해진다. 不忠 즉 〈忠喪失〉은 우리가 어떤 惡行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本來的인 自己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性格의 缺陷이 아니라 性格一般의 喪失이다. 따라서 不忠이 人間的 實體의 喪失이라면 忠約에 대한 無制約的인 責任은 人間的 實體의 획득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아온다면 우리는 人間形成에 있어 忠의 決定的인 意義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現代人들에게 忠이라는 것이 問題가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忠을 오직 封建君主에 대한 〈忠節〉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民主社會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忠節을 一方的으로 強要할 수 없고 강요해도 안된다. 따라서 特定人에 대해서가 아니라 一般的으로 國家·民族에 대해서는 〈忠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오해가 없고 適切할 것 같다.

## Ⅱ. 結 論

以上에서 우리는 忠孝思想의 變遷을 고찰해왔다. 一般的으로 德이란 自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一定한 歷史的 發展의 後期産物이다. 그것은 人間的 本質과 더불어 一回적으로 주어진 超時間的인 것이 아니다. 德의 形態는 人間的 모든 삶의 表現들처럼 歷史적으로 發展하고 變遷하고 또 浮沈한다. 왜냐하면 人間的 道德의 行爲는 부단히 變化하는 狀況 속에서 새로이 實現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때 그 때의 制限된 人間觀에 對應해서 언제나 一定한 새로운 形態를 띠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時代와 民族에 따라 어떤 德目은 尊重되고 어떤 德目は 도리어 賤視되기도 한다. 어떤 民族은 〈勇氣〉를 重視하는가 하면 어떤 民族은 그것을 輕視한다. 古代人들은 〈勤勉〉을 小人輩의 態度라고 賤視했지만 近代 이후 民主市民들은 근면을 美德이라고 尊重하고 있다. 東洋民族은 自古로 특히 孝를 德의 根本으로서 崇尚해 왔지만 西洋民族은 대체로 이것을 거의 度外視했다. 이처럼 東洋倫理가 家庭道德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中國에서 忠의 觀念보다 孝의 觀念이 더 강조되어왔다는 사실은 家族中心의 人間觀에 기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儒家의 道德은 身分의 色彩가 濃厚하거나, 이것은 이른바 君子를 人間的 典型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五倫의 德이 封建制度의 人間觀을 反影하고 있다는 것은 십사리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온다면 德의 變遷이라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現象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變遷은 단순히 낡은 德目에 대한 倦厭이 아니며 道德의 頹廢도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道德意識의 必然的인 更新 또는 回春을 促進시키는 唯一의 道程이다.

무릇 道德의 歷史的 相對性은 결코 하나의 缺陷이 아니라 오히려 自由로운 道德的 決斷의 前提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德의 喪失이 우리의 삶을 貧困하게 한다는 것은 두드러진 사실이다. 問題는 어떻게 해서 衰退해가는 道德意識을 回春시키며 이러한 歷史的 潮流에 對抗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대저 德이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斷乎한 道德的인 努力에 의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우기 젊은 世代에게 忠孝思想을 심어주며 忘却의 世界로 사라져가는 忠孝精神을 覺醒시키고 育成해야 한다. 이것은 現代教育의 주요한 課題다. 感謝·順從 및 報恩이라는 孝道의 自覺과 忠實한 自己形成 및 國家에 대한 忠誠心의 育成에 의해서만 젊은 世代는 共同體의 秩序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成長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